

얼어붙은 세밑온정

불황·선거 탓 복지시설 성금·후원물품 급감

광주·전남 모금회 목표액 30%, 26%에 그쳐

세밑 추위만큼이나 불우이웃에 대한 온정이 얼어붙었다. 모금회에 따라 올라가는 공동모금회의 '사랑의 행복 온도탑'의 눈금은 좀처럼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복지시설들은 성금과 후원물품이 줄어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공동모금회와 복지시설은 장기화된 경기불황과 대선, 추위가 겹치면서 성금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연말 집중모금운동인 '희망 2013 나눔캠페인'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약 한 달간 모금액은 광주 7억7800만원, 전남 16억4900만원으로 모금 목표액(광주 25억800만원, 전남 62억2000만원) 대비 각각 30%, 26.5%를 달성했다.

광주공동모금회는 올해 자생단체와 개인의 후원금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약 31%와 30%를 차지하던 개인과 자생단체의 기부금은 올해 22%,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지난 2009~2011년 집중모금 캠페인과 같이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공동모금회는 지난해 캠페인에서 4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전남공동모금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목표 대비 26.5% 수준으로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45억원 이상의 기부가 올해는 18.9%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소외계층 아이들이 추운 겨울 공부방 삼아 이용하는 동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는 이맘때쯤이면 으레 보내오던 간식도 끊겼다.

지역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남구 귀일원도 후원이 줄어 조촐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올해 대선 기간을 감안해 캠페인을 일주일여 앞당겨 시작했는데 모금액이 저조해 답답하다"며 "대선이 끝났으니 신년이 되면 기탁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성탄절인 25일 광주 임동 성당에서 성탄미사를 집전한 김희중 광주대학교장이 예수탄생을 축하하며 구유에 분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성당·교회 곳곳 성탄 미사·예배

성탄절인 25일 광주·전남 천주교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 아기 예수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일제히 진행됐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이날 오전 임동 성당에서 열린 예수성탄대축일 미사에서 '평화를 빕니다'라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세상은 물질만능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현대인들은 삶의 굴레에 갇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인간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해가는 불행

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겸손과 사랑 자체가 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참 평화와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광주 중앙교회와 성안교회·분향교회·무진교회·동명교회·양림교회 등 개신교도 교회별로 예배를 갖고 성탄 축하와 지역의 평화를 기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경찰 '수사권 분점 방안' 인수위 건의키로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경 수사권 분점의 경우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개정해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진행은 경찰이, 송치 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나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일

본식 모델을 제시했다.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경찰 수사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사건 송치 전에 검찰의 지휘를 얹고 송치 후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인정해 경찰 수사권의 남용을 막는 방식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200조 2항을 개정해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찰의 심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원칙을 밟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행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9분 해질 17시 27분 달돋이 15시 51분 달질 05시 33분

아침기온 '뚝'
결빙구간 많으니 안전에 유의하세요.

지역	기온
광주	맑음 -8/0°C
목포	맑음 -5/1°C
여수	맑음 -4/3°C
나주	맑음 -9/-1°C
완도	맑음 -6/2°C
구례	맑음 -8/1°C
강진	맑음 -10/-1°C
해남	맑음 -8/2°C
장흥	맑음 -9/1°C
순천	맑음 -8/1°C
영광	맑음 -9/-2°C
진도	맑음 -4/2°C
전주	맑음 -11/-2°C
군산	맑음 -10/-3°C
남원	맑음 -13/-3°C
홍산도	맑음 -2/2°C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면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면바다 북서~북 1.0~2.0m, 북서~북 1.5~2.5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면바다 북~북동 0.5~1.5m,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면바다 북~북동 0.5~1.5m, 북~북동 1.0~2.0m

◇주간날씨
날씨: 27(목) 맑음, 28(금) 흐림, 29(토) 맑음, 30(일) 맑음, 31(월) 맑음, 1/1(화) 맑음
최저/최고: -6/4, 2/5, 3/6, -3/1, -3/1, -4/2

광주·전남 내년 1월 강추위·큰 눈

내년 1월 광주·전남지역에는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2013년 1~3월)'에 따르면 내년 1월 광주·전남지역은 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추운 날이 많고,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눈과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평년(1~3도) 보다 낮고, 강수량은 평년(25~37mm)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

을 주기적으로 받아 날씨의 변화가 잦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2~4도) 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41~53mm) 보다 많겠다.

기상청은 내년 3월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6~8도, 60~96mm)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26일 광주·전남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충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JNJ TOUR 정남진투어 문의전화 1577-7616

여행을 통한 아름다운 만남..

정남진 투어에서는 **제주도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Event 정남진 투어 **공짜 이벤트!!!** 선착순 1일 5명 공짜!

2012년 11월 19일 ~ 12월 20일까지 주중항차 • 금토정흥/일성산출항 항차는 제외

선착순 3,000명 (사전예약자에 한함) 하루에 5명씩 적용!! 일반실 편도 ₩9,000 적용 (항만세 별도)

정남진 투어 이용시 20% 항시 할인~!! 선박최고 40%/노력항까지 버스임대 50% 할인~!!!

차량무료 선적 3명 예약시 1600cc 미만 차량 무료 이벤트 중복은 불가

오렌지호 장흥↔제주

제주 한라산 산행 **99,000**

제주 1박 2일투어 **119,000**

제주 2박3일투어 **139,000**